

# 나주시-신안군 ‘홍어 세계화’ 출사표 맞손

‘생산지-발효지의 만남’ 양 시·군 업무협약 체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상호협력 나서



영산강 바닷길을 통로로 홍어로 대표되는 남도 식(食)문화를 개척해왔던 두 지자체가 ‘홍어 세계화’에 출사표를 던졌다.

남도 대표 음식인 홍어 생산지 신안군과 식한 홍어, 발효 식문화의 메카인 나주시가 손을 맞잡는다. 나주시는 12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홍어 식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시군은 협약을 통해 홍어 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 공유, 지정문화재 추진 등 상호협력에 본격 착수한다.

홍어를 매개로 두 지자체는 역사적 측면에서 남다른 인연이 있다. 신안 흑산도는 홍어 집산지로, 나주 영산포는 식한(숙성) 홍어의 본고장으로 유명하다.

조선 중종 25년 관찬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고려말 남해안 지역 왜구

의 노략질로 신안 흑산도 인근 영산도 어민들이 나주 영산포로 피난을 오게 됐고 그때부터 이 지역에서 삭힌 홍어를 먹게 됐다.

당시 영산도에서 영산포까지 오는 데는 뱃길로 보름 정도 걸렸다. 이때 배에 싣고 온 생선들이 부패가 심해 버렸는데 항아리 속에서 쪼아 삭은 홍어만큼은 먹어도 뒤탈이 없는 데다 먹을수록 알찬 풍미가 있어 숙성 홍어가 영산포에 정착했다는 유래다. 양 시·군은 홍어가 가진 역사적

전통성과 독창적인 식문화 계승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주는 19회째, 신안은 9회째 각각 홍어 축제를 개최해오며 남도를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홍어 음식 대중화에 이바지해왔다.

나이가 이변 협약을 계기로 홍어 식문화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조사 및 자료 공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등에 협력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포부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병태 시장과 박우량 군수,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 시·군의원, 홍어 관련 명인·단체 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나주와 신안이 손을 잡고 계승해온 홍어 식문화를 확산하고 세계 인류와 함께 나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양 시·군과 의회, 생산과 발효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 명인, 주민들 모두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한 마음으로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영산도와 영산포는 명칭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갖고 있다”며 “전라도 식문화의 본류를 세계에 알리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선준 기자

## 순천 와온해변으로 ‘놀러와온’

‘음악이 보이는 바다’ 17일 오후 개최

오는 14일까지, 80명 선착순 모집

순천시는 순천 낙안읍성 동헌에서 김빈길 장군 창극 공연을 오는 6일과 6월 3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해공 김빈길 장군은 순천시 낙안면(조선시대 낙안군) 출신이다. 조선 태조 6년(1397년)에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낙안읍성을 처음으로 토성으로 쌓았고, 왜구를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워, 영의정에 추증된 민족적 영웅이다. 김빈길 장군 창극은 순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예술감독 정갑근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작창 이재영 판소리 명창, 전곡지휘 강종화 교수 등의 플라보로 이루어진 공연이다.

조선시대 전란 속에서 김빈길 장군이 보여준 애민 정신이 고스란히 극에 반영됐다. 판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과 연극뿐만 아니라 무용, 관현반주 등 여러 가지 종합예술형태를 고루 갖춘 품격



높은 창극으로 올해 총 5회 공연이다.

지난 4월 15일, 16일에 낙안읍성을 찾은 많은 관람객에게 호평받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앞으로 5월과 6월, 10월에 3회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창극으로 순천 낙안읍성과 함께 김빈길 장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 곡성, 159개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순향’

‘청정전남 으뜸마을’ 군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곡성군이 지난 9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제2차 군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깨끗한 곡성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곡성군은 전체 273개 마을 중 159개 마을이 선정됐고, 선정된 각 마을은 연차적으로 3년 동안 50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이귀동 부군수의 주재로 추진단 2차 회의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홍보상황 점검, 미답사례, 문제점 및 건의 사항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곡성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추진단장인 이귀동 부군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많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곡성군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지원단의 지역 활동가를 마을에 배치해 활발한 활동을 독려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곡성·황상연 기자

## 보성군장학재단,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9개 분야, 243명에 2억 116만 원 지원

보성군은 12일 (재)보성군장학재단(이사장 문찬오)이 미래의 희망인 지역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생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대학생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으로, 성적 우수, 미래인재, 희망나래(특기자), 보급자리(복지), 한울타리(군정발전), 꿈드림(검정고시), 희망드림(학업진료), 아름드리, 푸른꿈 등 9개 분야로 나눠 총 장학금 2억 116만 원이 243명에게 지급된다.

미래인재 장학금은 관내 중학교

졸업자 중 고등학교 입학 성적 우수자에게 재학 3년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 입학성 성적 우수자에게도 4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한다.

2023년 새롭게 신설한 ‘꿈드림’ 장학금은 학교 밖 아이들의 학업 기회를 제공하고 검정고시를 지원한다.

기탁자가 지정한 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특별지정 장학금으로는에 당고등학교 ‘황의광 장학금’ 1,000만 원, 보성중학교 ‘김신광 장학금’ 500만 원, 보성여자중학교 ‘김선옥 장학금’ 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성·장국도 기자

## 광양희망도서관 ‘어린이 미래교육’ 특화 서비스 운영

책과 함께하는 AI·메타버스 등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기대

광양희망도서관은 지역 어린이의 디지털 역량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어린이 미래교육’을 특화 주제로 선정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 미래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미래기술(인공지능, VR, 코딩 등)과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을 포함한 어린이 교육을 뜻한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 포스코엔텍과 포스코터미널의 지원으로 희망도서관에 교육 체험형 시설 ‘소프트웨어 놀이터’가 조성된 이후 ‘AI·SW 겨울방학특강’, ‘SW 가족 캠프’ 등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다

양한 미래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왔다.

올해는 2층 어린이자료실 상상숲 코너에 특화주제 서가를 설치해 미래교육 관련 도서 350여 권을 비치했으며, 도서 전시 공간을 함께 마련해 주제 탐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희망도서관은 특화도서 추가 구입과 더불어 주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북 큐레이션 전시와 어린이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하는 ‘2023년 아기가 있는 코딩’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7월 매주 토요일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광양·조순의 기자

### 순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순천시가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기간 전·중·후로 나누어 진행한다. 6월에는 사전홍보와 계도를, 7월과 8월에는 집중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집중호우 기간에 앞서 6월 중 폐수 다량배출사업장에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여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며,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8월에는 환경오염 우려 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도 병행한다.

또한, 8월부터는 녹색환경지원센터, 민간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업체에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장마철 등 집중호우 기간에 환경오염물질을 사업장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화순, 모내기 후 저온성 해충 ‘벼물바구미’ 피해 주의 당부

모내기를 마친 논에 저온성 벼 해충인 벼물바구미가 급증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화순군은 12일 벼물바구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제때 방제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벼물바구미는 월동한 후 논으로 이동해 벼잎을 갉아먹고 유충은 뿌리를 갉아먹는다. 이로 인해 벼의 뿌리 활착과 생육을 저해하는 병해충이다. 발생 초기에는 논둑에 인접한 벼를 중심으로 분포하다가 시간이 지남수록 논 중심부로 이동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친환경 재배 논과 조기 이앙한 논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벼 잎에 세로로 흰색 흔적이 생기는 것이 대표 증상이다. 이앙 후 주기적인 예찰이 필요하다. 또 이앙 후 10~15일째 적용약제로 방제해 초기 밀도를 줄여야 한다.

화순군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벼 일반 재배지 대상 육묘상자 처리제 구입용 3억3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했다.

/화순·주유현 기자

## ‘수국 생산량 전국 1위’ 강진 수국길 축제 열린다

오는 30일부터 3일간 보은산 V랜드 일원서 개최



본격적인 여름꽃의 향연이 시작되는 6월 강진에서 대규모 수국 축제가 열린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2023 강진 수국길 축제가 ‘물, 숲 강진의 여름 속으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보은산 V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현재 강진은 농가 20개소가 5만 8251㎡ 규모로 수국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생산 면적의 32.7%에 달한다.

전남도 내에서도 전체 생산량의 9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조경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수국의 상당수가 강진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진산 절화용 수국은 품질이 우수해 지난 2011년부터 일본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일본 전체 수출량의 100%를 강진이 차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싱가포르 시범 수출을 진행하면서 수출 누적 70만 본을 달성했다.

이번 수국길 축제 현장에서는 ‘전국 제1의 화훼도시 강진’의 명성에 걸맞는 각양각색의 수국을 만나볼 수 있다.

수국을 활용한 전시, 체험행사부터 여름철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물놀이까지 다채로운 콘텐츠가 조어

를 축제를 장식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활용 사진대회부터 숲속 음악회, 버스킹, 다양한 색깔의 수국들로 구성된 감성 포토존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있다.

축제장에서는 ‘리미인드 웨딩’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미리 구비된 신랑·신부 드레스와 수국부케를 활용해 연애 시절의 풋풋함과 결혼 당시의 설레임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보은산에 빼곡히 들어선 나무들과 햇살 아래 밝게 빛나는 수국을 배경으로 더 특별한 웨딩 촬영이 가능하고, 액자는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압화 부채부터 수국 리스(화관), 압화 그림책, 수국 화분까지 다양한 수국 관련 굿즈를 만들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장 내 저수지에는 짜릿한 여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20여 대 가량의 수상 자전거를 비치할 계획이며, 여름 대표消暑식품 연꽃단지도 선보인다. 또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할 것을 고려 V랜드 물놀이장을 축제 기간에 맞춰 한시 개장할 방침이다.

/강진=한홍수 기자

##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원전소재지 한목소리

12일 영광군 등 5개 지자체 국회서 행정협의회 개최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참여하고 있는 제32회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오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앞서 국회의원과관 제72간담회의실에서 제32회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에 대해 의결하였으며,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원 이인선, 김영식, 이개호 및 산자위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공동건의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과 “원전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

지내 저장시설을 영구화 하지 않음을 보장할 것”과 “원전부지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급 연

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할 것”을 공동건의서에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부담을 더 이상 원전소재 지자체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지속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구성되었다. /영광=서종민 기자

